민선식 남원부시장, 향교동 독거노인 가정방문

남원시 향교동 관계자는 민선식 부시장이 지난 12일 향교동 거주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며, 민 부시장은 온열기기 사용 주의, 겨울철 건강관리 등 독거노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세심한 상황을 챙겼다.

방문 대상자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마음도 추워지는데, 부시장님의 방문에 잠시라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작은 관심과 말 한마디에 겨울을 날 힘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민선식 부시장은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통동, 겨울철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점검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2024년 동절기 대비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안전점검 및 공공시설물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민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9일간 2024년 동절기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점검 대상으로 △양수장 배수시설 △농업용저수지의 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주택, 옹벽, 교량 등 주민생활 주변 위험 요소 등 전문관을 위촉하여 하자보수 관리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도통동 소규모 공공시설물 총 327개소(양수장1, 저수지5, 소교량 136, 세천 29, 낙차공 48, 농로 50, 마을진입로 58) 등이다.

점검에서는 결빙에 따른 시설물 파손 대비, 누수여부, 적정 저수량 유지 등으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조치가 불가한 경우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선자 도통동장은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시점검 및 안전점검 실시와 해당 시설물 등 점검하는 는 등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이백면, 한부모가정 등 외식쿠폰 전달

남원시 이백면(면장 안동준)에서는 올해 3월부터 한부모가정, 다자녀, 다문화 가구에 그린테이블(대표 이범진) 외식 쿠폰을 전달하며 행복한 식탁 만들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린테이블(대표 이범진)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1일 1가구 소통행정과 연계해 외식하기 어려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구를 발굴하고 약 10만원 상당의 외식쿠폰을 전달하고 가족들과 다 같이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드시며 가족애를 고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가구에 외식쿠폰을 전달했다.

쿠폰을 받은 면민들은 "이백면 그린테이블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식사할 기회를 제공해 준 이백면에 감사한다"라며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안동준 이백면장은 "앞으로도 이백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덕과면 주민, 쌀 20포 · 라면 20박스 기부

남원시는 지난 11일 덕과면 주민 송창호 씨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백미 20포(10kg)와 라면 20박스를 조용히 기부했다고 밝혔다.

송창호 씨는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다. 이번 나눔이 조금이나마 이웃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송창호 님이 보여주신 따뜻한 나눔의 정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부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부된 물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남원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청 주민복지과나 행정복지센터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나눔문화 확산의 밑거름 되길"

전주-완주 사회복지사,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1500포기 전달

전주시와 완주군 사회복지사들이 한데 어울려 이웃사랑과 온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완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진왕)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전주-완주 사회복지사 150여명이 참여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전주-완주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배추 1,500포기로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 김치들은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복지사각지대 600여 가구와 푸드뱅크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복지사들과 김장김치를 담그며 "추운 겨울,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이 행사가 단순히 김치를 나누는 것을 넘어 나눔 문화 확산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사회복지사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을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나눔 실천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소외계층 아동에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전북자치도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4년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초록우산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도내 기업과 단체 후원자들이 아동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포장하고 선물카드를 준비하는 연말 대표 캠페인이다. 이 행사는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후원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내 164명의 아동들에게 사전에 소원을 조사해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 100여 명의 후원자가 산타로 변장해 현장에서 직접 선물을 포장하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행사 중에는 결연후원 유공자로 선정된 두 명의 후원자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이들은 지속적인 기부와 후원으로 지역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 농협은행 전북본부 노조위원회(위원장 박병철), 전주 미소아름치과, 정성모아 사회적협동조합, 농협사료 전북지사, 이웃사랑의사회,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더메이호텔, 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전주시온교회 청년부, 전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 내 주요 후원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인호 초록우산 전북후원회장은 "요즘 어려운 시기에 특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물들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서남상의, 전기요금 절감 위해 지노베이션 C&G와 협약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최종필)에서는 지난 12일 상공회의소 산하 회원사 사업장의 전기요금 절감을 추진하기위해 ㈜지노베이션 C&G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고물가 고환율등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 여건과 최근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중.소 제조사들이 제조원가 상승의 부담을 갖고 있는바 이를 덜어 드리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지노베이션 C&G는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기요금 절감 컨설팅 회사로서 컨설팅이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노베이션 C&G에서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컨설팅 결과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선 투자를 하게 되며 투자금은 절감액을 확인후 절감액 범위내에서 업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추진한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최종필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많은 회원사가 전기요금 절감 컨설팅에 참여하여 전기요금을 절감 함으로써 제조원가 상승 부담을 덜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회원사의 활발한 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개공, 한파대비 건설현장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한파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을 지난 11일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현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혹한기에도 옥외 현장에서 작업하는 전북도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한용품(방한두건, 핫팩)을 지원하였고,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겨울철 한파대비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전파하는 등 다양한 안전활동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공사 임직원들은 "겨울철 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저체온증, 동상 등의 한랭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관리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무주군체육회 직원들,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체육회 직원(11명)들이 장학금 기탁에 동참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작은 나눔, 큰 기쁨'이라는 모토 아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100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군체육회 배준 사무국장은 "체육회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무주 지역 학생들과 체육 꿈나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인홍 이사장은 "소중한 마음이 담긴 장학금은 우리 군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꿈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체육회는 지난 2023년 생활체육지도자 성과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1위의 쾌거 등 무주군의 체육진흥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수안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학금 100만원 기탁

김수안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사업에 동참하고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수안 교육장은 "우리 지역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사업에 후원하게 되었다"며 "전국 최초 전학년 전학기 반값등록금 사업을 하는 부안군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 앞에 교육가치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안의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수안 교육장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부안교육을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행복한 부안교육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가수 김다현,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 200만원 전달

트로트 가수 김다현이 지난 12일 정읍시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가수 김다현은 청학동 훈장 김봉곤 씨의 막내딸로 독특한 음색과 매력적인 무대로 주목받고 있는 트로트 스타다.

2020년 MBN '보이스트롯' 준우승, 2021년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3위를 차지했고 지난 5월에는 한일가수들이 펼치는 '한일가왕전'에서 MVP를 받으며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도에 제29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성인가요 부문에서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하며 가수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상상카페', 장학금 기탁

지난 13일,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는 '무주상상반디숲' 1층에 자리한 상상카페 수익금 중 일부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을 방문해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관내 학생들의 학업 장려와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상상카페는 다문화 이주여성 2명과 무주군가족센터 직원들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이주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김제 황산면, 천사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 펼쳐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존식)가 지난 13일 김제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설렁탕 배식 및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제천사무료급식소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임미경 황산면장을 비롯해 10명의 위원들과 함께 봉사에 참여했다.

김제천사무료급식소는 2024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개관하였으며 (사)한국나눔연맹(중앙총재 안천웅)에서 전국의 회원들로부터 모아진 후원금으로 65세이상 결식우려 노인 약 350여 분에게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설렁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존식 민간위원장은 "맛있는 반찬과 정성이 담긴 따뜻한 설렁탕과 배식을 통해 김제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의 배고픔과 외로움 해소하고 자원봉사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